2007 봄호

쉰둘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마을

미.소.들.... 아이들의 미소로 가득 채워지는 2007년을 기원합니다.

http://www.kclf.org

봄빛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임 아 라
LG전자 홍보팀 기획/공헌그룹

모두에게 봄은 생명이 움터 오르는 시기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 위엔 매서운 추위와 바람을 이겨낸 나무와 꽃들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봄은 그 자체로 치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을 어린 생명들에게도 모진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춥고 지쳤던 몸과 마음에 활짝 기지개를 켜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 입니다.

한창 호기심에 들떠 뛰어 놀아야 할 시기에 홀로 힘든 투병 생활을 보내고 있는 환아들의 아픔이야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환아 가족들도 아이들의 고통을 똑같이 겪고 있겠지요. 아픔을 겪는 가정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만 있다면 LG전자는 그 아픔과 사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환아와 환아 가족, 그리고 LG전자 임직원이 함께했던 완치기원 연날리기를 떠올려봅니다. 환아와 가족들이 잠시나마 병을 잊고 자연으로 돌아갔던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밝게 빛났습니다. 희망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마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높이 나는 연을 바라보면서 각자 어떤 다짐을 했던 것도 희망의 마법을 거는 것과 비슷합니다. LG전자는 여러분들의 희망이 헛되지 않도록 늘 곁에서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LG전자는 2004년부터 환아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헌혈증 기증과 쉼터 지원 등 조그만 정성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아 한 명, 한 명의 의지와 노력, 환아 가족들의 인내와 사랑이 더해져 하루빨리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걱정은 모두 떨쳐버리고 오로지 병을 이기겠다는 희망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고통과 시련을 견뎌낸 여러분이야말로 훗날 더 튼튼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봄빛 희망의 해가 하늘높이 떴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은 약하고 어린 새싹이지만 주변의 따스함과 양분을 흡수하면서 점차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봄엔 환아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여섯 살 공주 마영주!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아온 여섯 살 공주 마영주의 엄마입니다.
영주가 처음 진단 받은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벌써 4년이 다 되었네요.
아이가 9개월에 접어들었는데도 기려고 하지 않고 좀 창백하고 힘이 없어보여서 걱정은 하면서도 그저 좋아지려니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잘 생기고 점상출혈도 있었는데 엄마의 무지로 하마터면 병을 키울 뻔 했구나 싶어 아찔해 지기도 하네요.다행히 예방접종을 하러 간 소아과 선생님께서 이상하게 창백하다며 배를 만져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 줄테니 큰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 보라셨지요.

설마하면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집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검사를 위해 주사를 꽂아야 하는데 바늘을 꽂으면 터지고 꽂으면 터지기를 열 아홉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헤모글로빈과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았던 것이지요. 공포와 고통으로 울부짖고 몸부림을 치는 영주의 몸은 어디 한 군데 멀쩡한 곳 없이 멍과 점상출혈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혈액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설마 큰 병이랴 싶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결과가 나오기를 4시간 정도 기다렸나 봅니다. 담당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담담하게 '백혈병'인 것 같으니 골수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영주가 그런 몹쓸 병에 걸렸을 리 없는데... 오진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안고 바로 입원, 다음 날 아침 골수검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회진 때 주치의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백혈병이 확실하다며 당장 항암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저희 부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아이를 부둥켜안고 울면서 가혹한 운명에 몸부림쳤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지, 차라리 나에게 병을 주실 것이지 왜 이 어린 것에게 그토록 모진 병을 주셨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주의 치료는 6개월간 병원이 집이 되어 계속 되었습니다. 돌 전의 백혈병은 '영아 백혈병'이라고 해서 예후가 안 좋다며 고용량의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셨죠. 어른도 견디기 힘든 독한 항암제를 맞으면서도 아이는 커갔습니다. 너무도 신기하고 감사하게 영주는 잘 견뎌 주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담즙까지 토하고 초록색 설사를 하면서도, 입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온몸의 피부가 다 헐어서 차마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도 없었는데도 영주는 재롱도 부리고 옹알이도 하고, 침대 난간을 붙들고 일어서서 뿡뿡이 흉내를 내며 엉덩이를 실룩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과 병실 사람들이 얼마나 웃으며 감사했는지요. 그때는 솔직히 영주가 다시 건강해져서 걷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영주가 어느덧 여섯 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아픈 아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씩씩하고 밝게 자라준 영주가 너무 고맙습니다. 맞는 골수 기증자를 국내에서도, 일본과 대만에서도 찾지 못해 결국 골수이식은 못했지만, 지난 5월에 3년 6개월의 긴 항암치료(유지요법 포함)를 마쳤습니다.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 성장할 때까지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주치의 선생님과 아이와 함께 아파해 주셨던 레지던트 선생님들,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주는 저희 가족만의 아이가 아니라 그분들 모두의 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 지고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하네요.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장애희망이 발레리나인 영주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받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재단에서 실시한 소아암 어린이 사진전에서 보여준 영주의 환한 미소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2007년 보건소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자료출처** : 2007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1. 대상

18세 미만(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07년 1월 1일 기준). 단, 2006년 기 지원대상자 중 2007년도에 만 18세(1988년 1월 1일~1988년 12월 31일)가 도래한 계속 치료 중인 환자에게도 지원하되 2007년도에 한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의료급여수급자

2)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다음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속하는 자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지원

가. 소득(천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308	2,203	2,919	3,617	4,216	4,829

나. 재산(천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45,361	166,835	183,990	200,729	215,109	229,801

3. 지원항목

1) 암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 관련 의료비

2)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3) 전이된 암,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4)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4. 지원금액

1)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2) 기타 암종: 연간 최대 1,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3) 단, 당해 연도 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5. 지원대상자 등록 및 지원

1) 등록신청장소 : 시,군,구 보건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2) 신청기간 : 연중접수(재등록신청은 부적합통지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가능)

3) 신청서식

-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호적등본 1부
- 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 1부
- 소득관계서류(월급명세서 등, 필요시) 각 1부
- 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시) 각 1부
- 부채관계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6. 기타

선정기준 부적합으로 재등록 신청할 경우, 6개월 이후 등록신청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일 이후의 의료비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징검다리기금 지원사업 안내

1. 징검다리기금이란 ?

암 치료로 인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아암 환자에게 보장구 구입비, 언어 · 인지학습치료비, 성장호르몬치료비, 기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대상

소아암 및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만 0~17세) 환자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충족하면서 소아혈액종양전문의의 추천을 받은 환자

1)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은 환자
2) 언어치료, 인지학습치료가 필요하다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3) 성장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분비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4) 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시술이 필요하다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3. 지원액

지원사업	지 원 내 용
보장구지원	• 용 도 : 팔,의지 · 다리,의지 · 기타보장구(의안, 보청기) • 지원액 :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최고 300만원
언어/인지학습치료	• 용 도 : 언어치료[1], 인지학습치료[2] • 지원액 : 최고 300만원
성장호르몬치료	• 용 도 : 성장호르몬 치료비 • 지원액 : 최고 500만원
기타 시술비	• 용 도 : 흉터성형, 치아재건 등 시술비 • 지원액 : 최고 500만원

1) 말, 언어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치료
2) 정신지체 또는 보통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졌으나 시지각운동 및 협응, 읽기와 의미파악, 철자 및 문어표현, 쓰기, 수 학습 중 적어도 한 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연령이나 학년 수준에서 2년 이상 미치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료

4. 절차

1) 서류접수 ⇨ 경제적 상황평가 ⇨ 사회복지사 면담 ⇨ 운영위원회 심사 및 지원결정 ⇨ 지원
2) 신청마감 : 매월 셋째주 금요일
3) 서류안내 :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 사무국 ☎ 02-766-7671
   - 신촌 우체국 흔사랑의집 ☎ 02-363-7671 / 02-393-7671
   - 대구 우체국 흔사랑의집 ☎ 053-253-7671
   - 전남 우체국 흔사랑의집 ☎ 061-375-7671
   - 부산 우체국 흔사랑의집 ☎ 051-244-7677

불안함을 자신감으로...

"여보세요? 저.. 자원봉사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면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재단으로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신 은선씨는 서울대병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작프로그램을 맡아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아는 은선씨는 인기 만점 봉사자이십니다. ^^

Q 은선씨 어렸을 때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감기가 들었는데 낫지를 않았어요. 겨울인데다 그렇게 심한 감기 증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쇄골 위에 계란만한 혹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언니에게만 살짝 보여줬는데, 결국 엄마도 알아버리고 가까운 내과를 찾아가게 됐어요. 선생님께서는 보시자마자 어떤 처방도 하지 않으신 채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덕분에 진단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단축된 거 같아요.
한 종합병원을 거쳐서 서울대병원에서 호지킨림프종 진단을 받았어요. 그땐 솔직히 무슨 병인지도 몰랐고, TV에서만 봐왔던 아픈 아이들의 모습과 뭔가 혼란스럽고 바빠 보이는 병원의 분위기에 많이 신기해했던 거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건 한 민둥머리 아이가 제 옆을 지나가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살짝 몸을 피했어요.
그 후 저는 병원 미용실에서 머리를 밀고, 그 아이처럼 모자를 쓰게 됐죠. 아무튼 그 때 제 심정은 슬프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은 그냥 '신기하다.'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춘기가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열 살짜리 꼬마여서 그랬던 거 같아요.

Q 치료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어떤 항암제의 냄새에요. 그 약이 들어가는 순간 구토를 했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그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냄새의 유무에 상관없이 치료를 받고 며칠간은 먹는 족족 구토를 해버리는 거... 그 느낌만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병원갈 때 주사실만은 일부러 쳐다보지 않는 버릇이 생겼을 정도니까요.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인턴으로 일하신 의사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원래 목사님이셨다가 개인적인 사명을 위해 의학공부를 하신 분이었어요.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골수검사를 할 때 옆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골수검사할 때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아픔을 하나도 못 느꼈는데, 후에 알고 보니 어른들도 많이 아파하는 검사였더라고요.
그 때 주신 성경책이 아직도 책장에 꽂혀있어요. 볼 때마다 많이 생각난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세요.

Q 힘들고, 마음 약해지는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이겨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초등학생답게 치료를 빨리 끝내고 머리를 길러야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리고 4학년을 그냥 패스했기 때문에 5학년 올라가서 친구들이 무시하면 어쩌나...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혼자 수학책을 풀었고요. 그냥 낫겠다는 하나의 의지 보다는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 나아야만 한다' 는 생각으로 살았던 거

정 은 선

1986년 10월 13일생
1996년 2월 호지킨림프종 진단
1997년 4월 치료종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3년 재학 중

같아요.
치료과정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밝고 당당히 그 시간을 이겨낸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의 제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가치관들이 그 때 생겨났답니다.
항암제를 맞고 와서 힘들 땐 극복이라는 단어가 생각조차 안났던 거 같아요. 그냥 사람이 무기력해진다고 할까요. 하루만 지나면 울렁거리는 속이 좋아지겠지.. 시간이나 빨리 가라.. 이런 식이었어요. 대신 그 시간이 지나면 엄마랑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뒷산에도 올라가고, 학교를 안가는 대신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재밌었던 기억도 많습니다. 아! TV를 보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란 자막이 나오면서 끝나잖아요. 그럴 때면 속으로 '그 시간엔 또 속 엄청 울렁거리고 있을 텐데...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또 다른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연이어 보았답니다. ^^

Q 참 긍정적인 생각들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신 것 같네요. 치료가 끝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학교 갓 입학 했을 때는 정말 청춘 시트콤 같은 행복한 생활을 했었으나, 그때뿐이었고요, 지금은 무거운 책 들고, 열심히 수업 들으러 다닌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심리학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고 갈피를 잡기 힘든 학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열심히 배워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공이 심리학이다 보니 미래에 대한 계획 역시 자연스레 그쪽을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하는 임상심리전문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마케팅 분야로 취직을 하고 싶기도 해요. 딱히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심리학에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고 싶어요.

Q 멋지십니다. 꼭 심리학계의 참 일꾼이 되실거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팠던 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왠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신경을 더 써주려하고,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할 수 있겠니?"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고3때 공부하기 짜증나고 불안할 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팠을 땐데, 그때를 생각하면 어떤 힘든 일도 엄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부터 불안함이 자신감으로 바뀌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항상 굳은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면 자연스레 아팠을 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왜 하필 나에게..' 란 생각을 하겠지만, 치료를 마치고 언젠가는 그 시간들이 도움이 될 때가 꼭 올 거예요. 건강한 게 물론 훨씬 좋은 일이지만, 아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과, 일들이 분명 있답니다.
"힘내세요!!!"

혼사랑의 집에서는...

소아암 환아 학교적응 지원 프로그램 "학교 속으로 GO! GO!!"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소아암 환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학교 속으로 GO! GO!!" 프로그램은 200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전남 지역의 주요 병원과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환아와 보호자 및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소망이의 희망일기' 영상물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에 활용될 영상물도 미리보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아의 반친구들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교육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은 기대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교육으로 인한 아이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육 전 · 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본 프로그램이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환아에 대한 이해 도모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사진은 대구 범일초등학교의 활동 모습이랍니다~

신청 및 문의전화		
	서울 우체국 혼 사랑의집 ☎ 02-766-7671~3	부산 우체국 혼 사랑의집 ☎ 051-244-7677
	신촌 우체국 혼 사랑의집 ☎ 02-363-7671	전남 우체국 혼 사랑의집 ☎ 061-375-7671
	대구 우체국 혼 사랑의집 ☎ 053-253-7671	

미술치료 신청하세요~~

재단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서울, 부산지역에 이어 전남 혼사랑의집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미술표현활동을 통해 소아암 투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아이들 스스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과 치료 의지를 북돋워 주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는 현재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결 후 5년 이내의 만 5세 이상의 소아암 및 재생불량성빈혈 환아로 미술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아 및 보호자의 직접 신청 또는 의료진의 추천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전화		
	신촌 우체국 혼 사랑의집 ☎ 02-393-7671	부산 우체국 혼 사랑의집 ☎ 051-244-7677
	전남 우체국 혼 사랑의집 ☎ 061-375-7671	

부산 우체국 혼사랑의집

제5회 희망가득 소망가득 완치대잔치

지난 2006년 12월 29일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치료받고 힘든 시간을 견뎌낸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은 어느 때 보다 밝고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2006년의 시간을 되새기며 다가오는 2007년의 벅찬 설렘으로 완치상장과 메달을 받은 환아들과 부모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혈소판 헌혈을 해 주신 혈소판 봉사자 세 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시상을 해주신 부산대병원 박성식 교수님과 백병원 민현순 선생님 외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화만들기 - "우리들의 UCC"

2007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소아암 환아와 형제들이 함께한 영화만들기 프로그램은 가족, 친구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희망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제 정하기, 시나리오 만들기, UCC 제작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비 영화감독 혹은 배우의 꿈을 '쑥쑥' 키워나가며 즐거운 활동을 한 이날 완성된 작품과 풍경은 재단 홈페이지 영상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주신 시청자미디어센터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박미주, 이정민 〉

전남 우체국 혼 사랑의집

따뜻한 설날

"설날"을 앞둔 지난 2월 15일 이색 사진촬영이 있었습니다. 힘든 투병생활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날 환자복을 벗고 예쁜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입어보지 못한 한복을 입고 어색하고 쑥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를 지켜보는 부모님들과 다른 병동 환자들, 그리고 행사를 주최한 저희들의 입에선 '우와~~' 하는 탄성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아픈 동안 한 번도 이런 사진을 찍어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는 부모님들께 작으나마 위안이 되는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래봅니다.
아이들의 사진은 다음날 액자로 제작되어 설맞이 새해 선물로 전달되었답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소상미, 정옥 〉

사랑이 모이는 곳

SBS 사회환원성금 전달

지난 12월 14일, SBS는 2006년 사회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본 재단에 10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금번 전달된 성금은 소아암 어린이의 항암치료비 및 조혈모세포이식비, 쉼터 개소, 정서적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2007년 우정사업본부 공익사업 선정

지난 2월 26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지속적인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07년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Kick off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으로 '우체국 혼 사랑의집 운영 및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지원금 1억 6천만 원은 쉼터 시설보수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G전자 헌혈증 및 치료비 지원

2006년 12월 5일. LG전자에서는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1,200만원과 헌혈증 166매를 가지고 재단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매년 LG전자에서는 소아암 어린이 돕기 헌혈 캠페인을 펼쳐 소아암 어린이에게 헌혈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소아암 완치기원 연날리기 행사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계신 LG전자와 LG전자 노동조합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기업 금호아시아나, 소아암 어린이 지원 Start!

금호아시아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의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 5천만원을 재단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본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 장학금, 가족캠프, 주거환경개선 등의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기업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사랑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 차카게살자 파티

재단 이승환 홍보대사께서 매년 '차카게살자' 공연을 통한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어린이에게 지원한지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2월 24일 '여덟 번째 차카게 살자 2007'에서는 이승환과 무적밴드의 공연과 함께 넬, 김원준, 싸이, 김진표, 노브레인, 지누, 유희열, 정지찬, 정석원, 올라이즈밴드, IFD, J ANALOZIK+APLS가 함께 참여하여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앞에서는 모금함 설치 및 사진 경매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매년 '차카게 살자' 모토를 실천하시는 이승환 홍보대사님, 또한 그 나눔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드림팩토리클럽, 구름물고기, 마스터플랜, 그리고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진주삼현여자중학교 2학년 8반 학생들의 선행

쌀쌀한 겨울바람을 뚫고 멀리 진주에서 마음 따뜻한 소식이 재단으로 도착했습니다.

진주삼현여자중학교 2학년 8반 학생들이 일 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지난 16일 학교 운동장에서 작지만 소박한 음식바자회를 열어 모아진 수익금 58만원을 재단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삼현여자중학교 2학년 8반 41명의 천사 같은 학생들과 이민혜 담임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제1회 소아암 어린이 사진전 - 미.소.들

2006년 12월 27일 시작된 [제1회 KRA 소아암 어린이 사진전-미.소.들]이 2007년 1월 2일 막을 내렸습니다. 2006년 9월 참가자 신청을 시작으로 약 4개월 동안 아이들의 미소를 사진으로 남겼고, 그 사진은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되어 전시되었습니다.

전시가 시작되었던 2006년 12월 27일. 그 동안 사진전을 위한 촬영을 함께 했던 가족들과 사진작가 선생님들이 함께 한 그 날, 나무자전거의 멋진 축하공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후원해 주신 KRA 한국마사회, 사진 작업에 함께 해 주신 이규철, 이상원, 최지현, 양철모, 고승범 작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주)태진인터내셔날 (루이까또즈) 치료비 전달

매월 소아암 어린이 외래치료비 '새생명통장'을 지원하는 (주)태진인터내셔날은 2006년 12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태진인터내셔날(루이까또즈)의 지속적인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 KTX 50%할인권 전달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양현욱) 임직원은 공사창립 2주년 기념품인 KTX 50% 할인권 72매를 재단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본 할인권은 장거리를 오가는 서울 지역 소아암 어린이 쉼터를 이용하는 가족에게 배부되어 소중히 사용되었습니다.

소아암 환아와 함께하는 소박한 동행 - 미술치료 전시회

지난 2006년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소아암 환아와 함께하는 '소박한 동행'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인사동 갤러리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된 본 전시회는 2006년 한 해 동안 미술치료를 받았던 환아들의 작품들로 이루어 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400여명의 관람객이 전시회를 찾아 주셨고, 많은 관람객들 덕분에 성황리에 전시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위해 작품을 출품해준 11명의 환아들과 2명의 완치자들,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재단의 미술치료사 두 분, 그리고 뜻 깊은 이번 전시회를 후원해 주신 우정사업본부, 전시회를 찾아주신 관람객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극 '벽속의 요정' 관람

2007년 2월 15일.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자원봉사자들께서 극단 미추의 '벽속의 요정'을 관람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일 매진을 기록하는 공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연극 또한 감동적이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까지 배려해 주신 레스토랑 張의 지영랑 사장님, 그리고 연극에 흔쾌히 초대해 주신 극단 미추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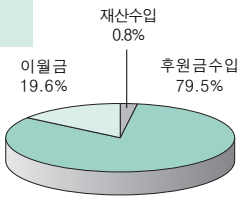
재단사업 안내 영상물 제작

'MBC어린이에게 새생명을'의 후원으로 2006년 한 해 동안 준비하여 제작된 영상물은 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안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영상물은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께서 보다 쉽게 재단사업을 이해하고, 재단의 각종 사업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영상물이 소아암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6년 사업보고

1.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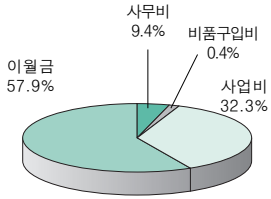
[단위:원]



재산 수입	26,862,788
후원금수입	2,714,098,010
잡 수 입	2,705,661
예 수 금	1,163,100
이 월 금	668,586,004
합 계	3,413,415,563

2.지출

[단위:원]



사 무 비	317,347,120
비품구입비	14,664,000
사 업 비	1,103,858,284
*이 월 금	1,977,546,159
합 계	3,413,415,563

* 2007년 사업비로 지원된 SBS지원금 10억원이 포함됨

3.사업비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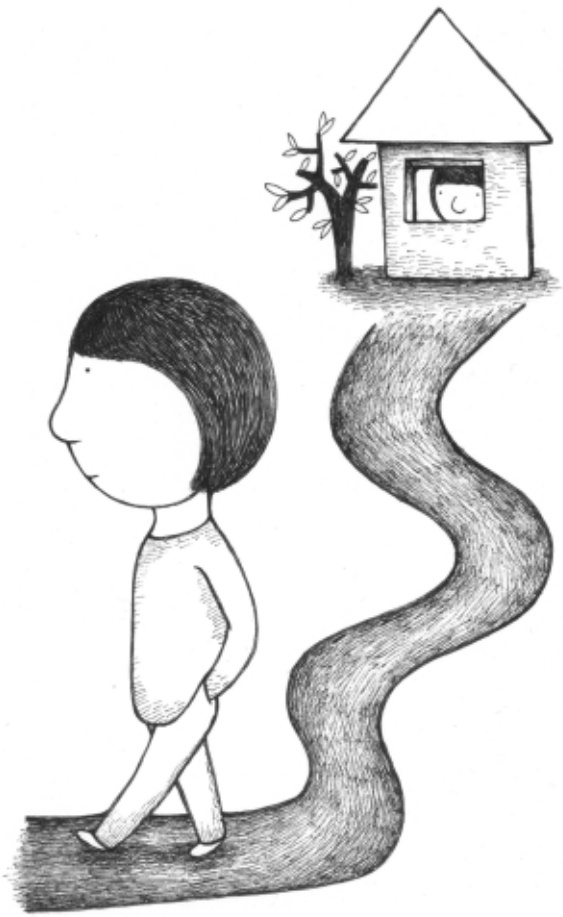
	사 업 명	사업실적	사업비(원)	비율(%)	
경제적 지원	천사백이식비지원	13(명)	97,171,320	8.8	64.2
	새생명통장지원	87(명)	108,758,000	9.9	
	특별기금지원	131(건)	388,961,092	35.3	
	헌혈증지원	2,449(매)	19,592,000	1.8	
	부모회지원	–	91,269,600	8.3	
	추진경비	–	1,402,610	0.1	
정서적 지원	환아집단활동	–	20,990,090	1.9	12.2
	캠프	1(건)	7,748,610	0.7	
	가족행사	–	89,933,505	8.2	
	가발지원	16(명)	12,800,000	1.1	
	추진경비	–	3,384,160	0.3	
정 보 지 원	교육자료발간	4회 / 8,000(부)	30,197,200	2.7	5.2
	상담	5,030(건)	3,350,334	0.3	
	홈페이지운영	–	13,401,413	1.2	
	소식지발간	4회 / 43,000(부)	9,998,000	0.9	
	추진경비	–	795,180	0.1	
연구지원	연구지원	–	40,000,000	3.6	3.6
기 획 사 업	직원교육	–	4,946,860	0.4	8.4
	홍보사업	–	7,524,900	0.7	
	후원회원관리	14,968(명)	39,607,440	3.6	
	자원봉사자관리	–	2,448,470	0.2	
	후원개발비	–	29,662,120	2.7	
	추진경비	–	9,016,990	0.8	
쉼터운영	공공요금	쉼터(5개소)	21,072,670	1.9	6.4
	쉼터이용사업비	”	16,900,570	1.5	
	쉼터장비유지비	”	32,287,640	2.9	
	추진경비	”	637,510	0.1	
합 계			1,103,858,284	100	100

* ‘헌혈증 지원’과 ‘가발 지원’ 사업비는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한 것임.
* 경제적 지원 중 ‘부모회 지원’ 항목에는 물품 후원(인형) 환산액이 포함된 것임.

한 눈에 보는 2006 나눔소식

소식지의 나눔 소식을 통해 소개되었던 아름다운 기업들을 기억하시죠?
2006년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꾸준히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전개해주신 기업과 단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가운데 여러 캠페인이 계속 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캠페인명(기간)	내 용	2006년 모금액
G마켓 '후원쇼핑' (2006년 1월~12월)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은 후원상품 중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지정된 상품을 구매자가 구입시 판매자, 또는 G마켓이 지정한 금액을 후원하였습니다.	41,333,920원
KT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 (2006년 1월~12월)	'KT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 캠페인에 동참하는 고객의 전화요금 중 1%를 KT에서 적립하여 후원하였습니다.	5,328,530원
롯데닷컴 '희망클릭' (2006년 1월~12월)	롯데닷컴(주)은 2004년부터 매월 후원금 100만원과 함께 쇼핑몰 내 소아암 어린이 돕기 '희망클릭' 페이지에서 고객 포인트 기부를 통한 후원 및 재단 정기후원자 모집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2,837,204원
맘스쇼핑몰 '엔젤포인트' (2006년 1월~12월)	육아포털 사이트 맘스다이어리는 맘스쇼핑몰에서 '엔젤포인트'를 개설하여 포인트를 후원하였습니다.	765,000원
신한 아름다운카드 (2006년 1월~12월)	신한아름다운카드는 아름인 카드 사용 시 결제액의 0.5~0.8%의 아름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금액 또는 카드결재를 통해 모아진 금액을 후원하였습니다.	8,404,611원
중앙일보 Have a Dream (2006년 2월~6월)	중앙일보 신규 구독자 발생시와 기존 구독자가 구독료 납부방법을 자동이체로 선택하는 경우, 중앙일보사측에서 1인당 2,000원을 적립하고, 2006 독일월드컵에서 대표팀 1승 시 1,000만원을 적립하여 후원하였습니다.	27,200,000원
파파프로덕션 연극 라이어 1% 후원 (2006년 3월~12월)	파파프로덕션은 공연 '라이어' 수익금 중 1%를 매달 후원하였습니다.	1,065,000원



집안에 혼자 있어도,
집밖에 사람들과 있어도,

요즘은 마음이 참 이상해.

날씨 탓인가...?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건가...?

다들 어떠신가요?

글·그림 소복이
www.sobogi.net

“고맙데이! 얘들아……”

김 지 나
대구 우체국 흔사랑의집 자원봉사자

애들아~ 안녕! 누구냐구? 나 만득이야! 만들기 쌤! ^^
지난 여름에 처음 만나서 벌써 겨울이 지나고 우리가 함께하는 첫 번째 봄이 오는구나. 아직 개나리가 피진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꾸민 꽃이랑 나비가 가득한 봄동산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 쉼터에 봄이 찾아온 듯하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 마다 만들기 주제를 찾아다니면서 선생님의 생활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단다. 예전엔 바쁜 생활에 쫓겨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사소한 사물들과 일상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런 사물과 일상을 어떤 색깔과 어떤 재료로 너희들과 만들기 활동을 통해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분좋은 상상’을 하게 되었단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이후 잊고 있던 크레파스의 부드러운 느낌과 예쁜 색깔들을 다시 만나는 기회도 갖게 되었어. 너희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매주 선생님에게 작은 추억들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준 너희들이 진짜 만들기 선생님이었단다. 고마워, 얘들아.

선생님이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줄까?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너무 겁쟁이여서 주사 맞으러 갈 때면 늘 병원 꼭대기 층까지 달아나곤 했었어. 지금처럼 선생님이 어른이 된 후에도 주사보다도 더 무섭고 겁나는, 그래서 달아나 버리고 싶은 일들이 때때로 생긴단다. 그렇지만 지금은 꾹 참고 달아나지 않는단다. 왜냐구? 너희들도 주사 맞을 때 울지 않잖아. 치료 받을 때 아파도 꾹 잘 참잖아. 밥이 먹기 싫지만 얼른 튼튼해지기 위해 맛있게 먹을 거잖아.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씩씩해지고 용감해 지는 법을 가르쳐 준거야. 고마워, 얘들아.
3월이 되면 병원 앞 공원은 예쁜 꽃이랑 보드랍고 여린 연녹색 잎을 피운 나무들로 가득차겠지? 아마 지금쯤 꽃이랑 잎들이 두꺼운 씨앗과 나무껍질 아래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거야. 따뜻하고 눈부신 햇살 속으로 나오기 위해서 말이야.
우리도 알고 있잖아. 예쁘고 마음에 쏙 드는 나만의 만들기 작품 하나를 만들려면 한참동안 생각하고 가위질하고 풀질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지금 힘들고 아프고 지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참으면 너희들은 햇살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굳게 믿는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선생님은 꽃과 나무가 가득한 공원길을 지나서 너희들을 만나러 병원으로 향하겠지? 선생님에게 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올핸 더 씩씩해지고 늠름해져서 얼른 나아야 돼. 선생님의 만들기 수업이 너희들을 한번이라도 더 웃게 만들 수 있기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 고마워, 얘들아. 그리고 사랑해

김지나 선생님께서는 2006년 7월부터 경북대병원에 입원중인 아이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만들기 시간 많이 기다리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내 친구는 천사병동에 있다.

소개의 글

이 책에는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모든 아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소아암 환아인 주인공 지혜의 일상을 통해서 소아암의 치료과정, 소아암 환아의 친구관계, 소아암 환아의 학교생활 등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거치며 주인공이 갖는 생각과 느낌은 대부분의 환아들이 가지게 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환아의 눈을 통해 본 부모의 모습, 의료진의 모습, 친구들의 모습, 나아가 사회의 모습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책이 소아암 환아들에게는 공감을 자아내고 부모를 비롯한 환아 주변인들에게는 환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촌 우체국힌 사랑의집 임희은 사회복지사〉

줄거리

11살 지혜는 1년여 전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천사병동이라 불리는 소아암 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마지막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지혜의 병실에는 약 부작용으로 하루 종일 구토를 하는 친구, 면역력이 낮아 무균실로 올라간 친구 등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얼마 전 진단을 받은 수빈이가 있다. 수빈이는 최진철 의사선생님 이후로 지혜의 남자친구로 찍힌 두 번째 남자이기도 하다.

지혜는 갓 들어온 수빈이를 병원에 남겨두고 아쉬운 퇴원을 했고, 기다리던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간 학교는 지혜가 그리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소아암 치료를 받은 지혜에게 모든 상황에서 특별대우를 해주는 부담스러운 선생님과 급식대신 도시락을 먹는 지혜를 놀리는 친구까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학교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한편 철부지 동생은 언니만 예뻐한다며 비오는 날 사라지는 소동까지 벌인다. 침대 밑에서 울다 잠든 동생의 모습은 슬픈 아이였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지혜 가족은 그동안 피자 값, 용돈을 모아 마련한 돈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천사병동을 찾는다. 그 곳에서 뜻밖에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다름 아닌 그동안 밉게만 보였던 담임선생님과 반친구들... 알고 보니 지혜 모르게 천사병동 친구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던 것이다. 모두가 하나 되는 크리스마스 파티 모습이 정겨움으로 다가온다.

저자소개

글 이옥수 : 한국문인협회 문학작품 공모 최우수상, KBS 자녀교육 체험수기 대상을 비롯, 2004년 사계절 문학상 대상 수상.
〈똥 싼 할머니〉, 〈아빠 업어줘〉, 〈푸른 사다리〉 등

그림 김중석 : 서양화를 전공. 〈나도 이제 1학년〉, 〈아빠가 보고 싶어〉, 〈최현호는 왜 집으로 돌아왔을까〉, 〈찐찐군과 두빵두〉 등

♥ 한뜻후원자 소식 ♥

신규후원자 소개(2006. 12. 1 ~ 2007. 2. 28 / 가나다 순입니다)

강화영	구진서	김경림	김경화	김성호	김영록
김영선	김윤숙	김현주	박재철	박정순	서자송
신권성	유민채	이경훈	이광석	이미자	이병훈
이상석	이성용	이원진	이응승	전성아	전정희
전지혜	전창주	정동진	채정일	최선옥	최순호
최호준	허영혜	황수현			

◆ 2007년 2월 28일까지 832분이 한뜻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 만세후원자 소식 ♥

신규후원자 소개(2006. 12 . 1 ~ 2007. 2. 28 / 가나다 순입니다)

고현길	김미영	김선원	김정의	박명녀	박미숙
박형순	손동진	손소연	송기윤	심무경	윤소영
이정범	이행빈	전준하	전창주	정성미	정임석

◆ 2007년 2월 28일까지 1,872분이 만세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새로 신청해 주신 후원자님, 이미 후원자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안내

- 국민은행 : 001-01-2353-890
- 기업은행 : 090-000260-04-015
- 농　　협 : 029-01-176943
- 우 체 국 : 012989-01-003327
- 신한은행 : 310-03-002396
- **예 금 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주고 계시는 만세후원자님께서도 편리한 CMS로 후원금을 납부하세요!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알려드립니다!!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소식지와 우편물을 받아보실수 있도록 주소변경 및 연락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셔서 매년 보내드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영수증을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하시는 후원자님들이 많으십니다. 평소 우편물 수령이 잘 되지 않은 경우나 주소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2-766-7671~3 / E-mail : cancer@kclf.org)

천사백후원금 지원환아 (2006. 12. ~ 2007. 2.)

황 성 민
(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대구)
1,000만원

특별기금 지원환아 (2006. 12. ~ 2007. 2.)

1. 우체국한사람기금 : 각 300만원

박지윤 (횡문근육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원동수 (송과선 악성신생물/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이금준 (신세포암/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오희경 (뇌종양/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김희준 (비호지킨림프종/경북대학교병원/대구)
이재호 (재생불량성빈혈/여의도성모병원/경기)
김새미 (결절성경화증성호지킨병/서울아산병원/충북)
이혜인 (신경모세포종/세브란스병원/경기)
백민지 (뇌종양/부산백병원/경남)

2. (주)포스코건설

황영선 (급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부산) **500만원**
김희준 (비호지킨림프종/경북대학교병원/대구) **300만원**
안지찬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400만원**

3. LG전자 : 각 500만원

장세정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서울)
김병주 (급성골수성백혈병/영남대학교병원/대구)

4.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각 500만원

최인혁 (뇌종양/삼성서울병원/부산)
박 훈 (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제주)
김병주 (급성골수성백혈병/영남대학교병원/대구)

5. 드림팩토리클럽, 차카게살자기금 : 각 500만원

노소민 (뇌종양/동아대학교의료원/경남)

6. 토탈소프트뱅크기금

김병우 (급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부산) **500만원**

7. 양진의료재단

김새미 (결절성경화증성호지킨병/서울아산병원/충북) **100만원**

8. G마켓기금

손광기 (골육종/원자력병원/전남) **100만원**
이승주 (골육종/서울대학교병원/부산) **1,217,630원**

9. 김태훈기금

진보경 (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기) **150만원**

10. 배재열기금

김소원 (망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북) **100만원**

11. 내이션스밴드 기금

최주원 (급성림프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100만원**

12. 한국남동발전기금

이정현 (골육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100만원**

13. 태진인터내셔날 - 지정기탁 : 각 100만원

배동민 (비호지킨림프종/단국대학교병원/충남)
김은서 (재생불량성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14. 지정기탁

이재호 (중증재생불량성빈혈/여의도성모병원/경기) **100만원**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7년 2월 28일 현재)

참여후원자 : 3,292명　　구좌수 : 17,717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6. 12. 1 ~ 2007. 2. 28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입니다.)

경남은행 CMS	홍지숙
국민은행 CMS	김성모 김수현 김영은 김재용 김창모 김화순 남영주
	류미옥 류창수 이향희 주소정 황은선
기업은행 CMS	이현미 최광락 하국선
농　　협 CMS	강미정 곽영주 김수경 김아영 김　일 김자연 김재성 남영금
	박윤백 박정훈 박현정 백민희 안효숙 우성만 이근복 임명묵
	조석명 최호준 허영명 황희진
대구은행 CMS	김수연 김은재 정주미 황미진
부산은행 CMS	이은영 이호준 최연석
산업은행 CMS	문선혜
신한은행 CMS	곽자영 권기남 김한철 동산통신 백현주 신인선 오태곤 황금순
씨티은행 CMS	정승원
외환은행 CMS	고영희 김현수 백현남 정상원 조은정
우리은행 CMS	김영재 김은주 김종호 송재규 윤주란 윤태숙 이규현 이신영
	이유란 이은영 이일규 조은진 최미경 한시은 홍미령
우 체 국 CMS	이승주
제일은행 CMS	오유진(오현진) 원미선
제주은행 CMS	강승범
하나은행 CMS	김미경 박성우 이상은 이정호
H S B C CMS	김유성

후원계좌안내

· 경남은행 : 514-07-0175564
· 광주은행 : 200-107-315315
· 국민은행 : 031-01-0414-356
· 기업은행 : 090-000260-04-022
· 농　　협 : 029-01-170940
· 대구은행 : 004-05-179828-001
· 부산은행 : 070-01-021379-8
· 외환은행 : 141-22-00799-6
· 우리은행 : 112-04-112571
· 우 체 국 : 012989-01-003313
· 제일은행 : 225-20-385050
· 신한은행 : 367-01-192434
·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 씨티은행 : 100-59711-251

· 예 금 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천사백 후원자님께서도 후원금을 편리한 CMS로 납부하세요!!!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1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CMS를 신청하시면 이런점들이 좋아요!!!

1. 매년 인상되는 지로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이 절약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실수 있습니다.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해지 및 변경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재단사무국으로 변경하실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02-766-7671~3 / E-mail : cancer@kclf.org)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용 후원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사랑의 모음터

사랑의 헌혈증서 (2006. 12. 1 ~ 2007. 2. 28) ※( )는 기증하신 헌혈증 매수입니다.

강정구(4)
명동손국수(85)
故오경은(93)
한국정보통신(주)(13)
LG전자(166)
강창오(30)
故박지예(746)
(주)웹젠(33)
허진수(허호준)(48)
익명(541)
고려여행사(47)
벼룩시장(535)
증권예탁결제원(66)
현하욱(17)
드림팩토리클럽(193)
안준기(6)
한국갱생보호공단(21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14)

특별 후원금

2007 12월	김영미	2,000,000	삼현여중2-8	580,000	서울한강로타리클럽	1,070,000
	서장훈	1,000,000	서정민	200,000	송미경	1,000,000
	안기순	250,000	전영주	2,500,000	(주)롯데닷컴	1,032,257
	지마켓	1,598,430	청룡동금고	300,000		
2007 1월	아이오디자인랩	237,900	제이앤케이인터내셔날	100,000	(주)롯데닷컴	1,261,994
2월	박성배	600,000	박종선	500,000	성소연	100,000
	(주)롯데닷컴	1,113,789				

후원물품 (2006. 12. 1 ~ 2007. 2. 28)

고정혁外 음료수
김영실 문구류
박찬중 생필품 쌀(40kg)
사랑터 식료품
조현우 프린터기
홍슬기外 오징어
김경희外 쌀(40kg)
김정민外 쌀(40kg)
박철민 문구류
삼성생명여의도지점 핸드크림 카드
차카게살자회원 쌀(40kg)
화순우체국 세탁기 밥솥
김민호 귤
김태형外 음료수
벼룩시장 케이크
서울대병원우체국 케이크
촛불회 양념류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 티켓활인권(72매)
김상호 양념류
문준형 한라봉
부산체신청 복사기
윤혜민외2명 선물
하이모 참치캔세트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7년 봄호는 SBS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

발행인 / 송상현 편집인 / 안효섭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02)766-7671~3 팩스 / (02)766-7674
http://www.kclf.org / e-mail : cancer@kclf.org